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완도 수산물 간편식제품 기술이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정규진 센터장)는 지난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과 협약 체결 전복 해초 무침·매콤 완도 광어 조림 등 개발

9월 28일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과 완도 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전복과 해조류를 소스와 함께 비벼 먹을 수 있는 '전복 해초 무침'과 전복과 결명자를 혼합한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 음료 '아이 러브 전복', 도톰한 완도산

광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매콤한 완도 광어 조림'을 개발했다. 세 가지 제품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내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기술이전 심의를 통과하여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간편식 제품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양식 수산물 단순 가공과 소비 한계를 이면 기술 이전과 간편식 제품 개발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밝혔다. 양희문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 대표는 "해양센터 개발 제품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규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이번 기술 이전 성과를 토대로 완도 대표 양식 수산물인 전복, 광어,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간편식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지역 수산 가공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가가치를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도=이민혁기자

강진군, 2022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 선정 쾌거

관내 가로등에 디밍제어시스템 도입...연간 3000만 원 절약
강진군은 '2022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억 원(국비 40%, 군비 60%)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과 지역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에너지 절약사업의 기술 타당성

및 절약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전남도에서 강진, 광양, 나주, 장성 등 4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가로(보안)등 양방향 지능형 디밍(Dimming)제어시스템으로 가로(보안)등의 밝기를 시간대별로 자동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보안등 상태 감시, 원격제어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사업 시행 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시간당 985MW였으나 시행 후에는 616MW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해 연간 에너지의 37.5%(3,000만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 초부터 관내 일원의 노후된 나트륨 가로(보안)등이 설치된



"4백만 관광객시대 연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출범

체류형 관광도시 발전 지원
해남군은 문화관광산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의 첫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지난 1일 해남읍 가림밭당에서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월 15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출범식 대신 명원관 해남군수와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지역 문화관광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재단은 이병욱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개팀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지역관광 진흥사업, 관

광상품 개발 등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로 촉발된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스마트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생태·음식 관광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으로 해남군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원관 군수는 "관광객 4백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산업의 부가치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재단 출범과 함께 다양한 지역 내의 기업 및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남군 문화관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농촌 활력 도우미 출동 준비 끝" 퍼실리테이터 20명 양성

장흥군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장흥군 장흥면 양곡마을 소재의 마을공방에서 장흥군민 20명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이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기법, 아이디어 발상법 등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물론 상향식 농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역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20명의 퍼실리테이터들은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인 현장포럼의 보조 퍼실리테이터로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활동을 경험해 나갈 예정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 서망항, 살 짝찬 꽃게 풍년 제철맞은 '가을 꽃게' 풍어...전국 꽃게 생산량 25% 차지



진도 앞바다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어선들이 앞다퉈 가을 꽃게 조업에 나서 지역경제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여척이 출어해 적당 200kg 잡아 하루 위판량 3~5t을 올리고 있어 진도군 서망항이 가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지금 진도군 조도면 외벌·독거도 일원에서 끌어 올리는 그물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 김영서 어민(진도군 통발협회)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진도 앞바다는 가을 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많은 양의 꽃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진도산 꽃게는 다른 지역보다 상품성이 좋아 현재 kg당 수협 경매가격이 1만5,000원-1만6,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냉수대가 형성되어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진도 조도면 해역에는 깃바위 모래층으로 형성돼 꽃게의 서식지로 제격이고,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해역이다. 특히 진도군에서 2004년부터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으며, 매년 1억원 이상 꽃게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오고 있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가을 꽃게는 꽃게찜과 탕, 간장 계장 등으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가을철 진도 꽃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